

JUNG MYUNG TAEK
정명택

2021. 08. 20 – 2021. 09. 17

THE
PAGE
GALLERY

THE PAGE PRESS GALLERY RELEASE

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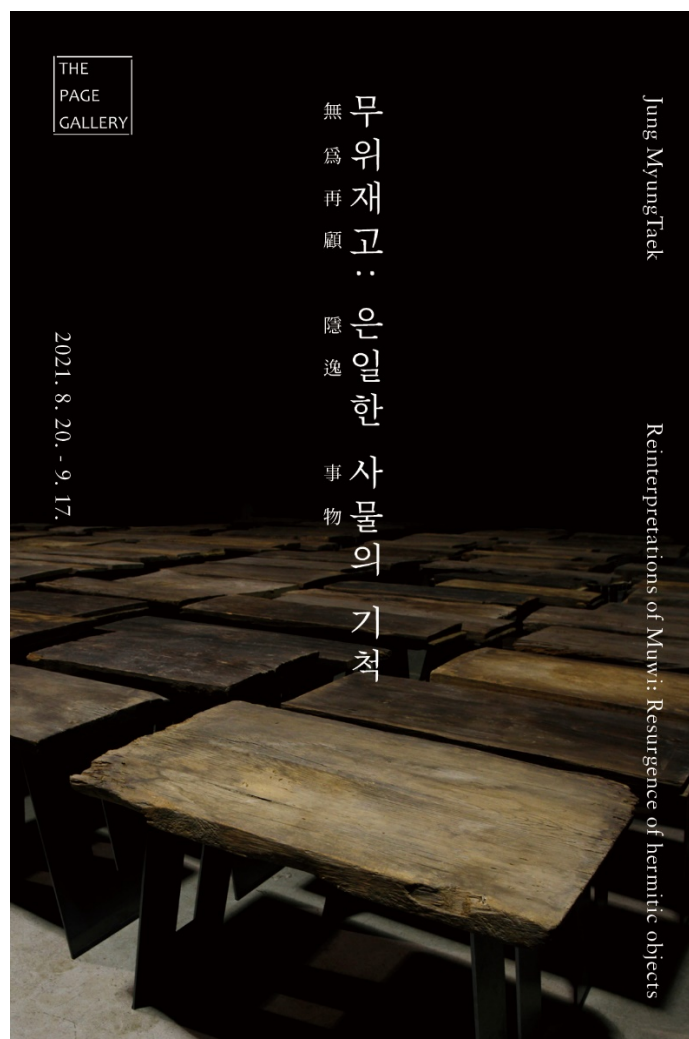
이은주 eunju@thepage-gallery.com / 이소휘 info@thepage-gallery.com

* 총 작품리스트와 이미지는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webhard.co.kr / ID: thepage0049 PW: 0049**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 포레 G205, 더페이지 갤러리

THE PAGE GALLERY, G205 GALLERIA FORET, 32-14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



[2021.08.20.-09.17]

JUNG MYUNG TAEK

정명택

무위재고 無爲再顧 : 은일(隱逸)한 사물의 기척

Reinterpretations of Muwi : Resurgence of Hermitic Objects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공간의 가치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더페이지갤러리에서 가구와 예술 두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정명택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예술작품으로서 공간을 정의하는 아트퍼니처는 상업과 문화, 예술과 실용성 간 관계에 대한 매력적인 질문들을 제기하며 성장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2021년 최신작과 함께 작가의 자연주의 정신이 깃든 아트퍼니처를 선보이고자 한다.

정명택은 195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아트 퍼니처의 개념을 한국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미국 유학 당시 아트 퍼니처의 아버지라 불리는 웬델 캐슬의 컬렉션 Wendell Castle Collection 디자이너 및 제작자로 벤치와 테이블 작품을 제작했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정명택의 아트 퍼니처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 가변적인 한국 고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작품은 건축과 공간 즉, 물질과 비물질의 어우러짐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에 내재된 특징을 크게 '크게 '무위(無爲)의 순수미', '무심(無心)의 담백미', '무형(無形)의 공간미'로 바라보고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서 정명택의 은일한 사물의 기척이 자아내는 물질과 공간의 본질적인 관계, 무위에 대한 깊고도 자유로운 탐구로 관객을 끌어들이는다.

“ 무위는 제 뜻만으로 살아가는 경위를 넘어 몸과 마음의 기를 누그러뜨린, 안온함을 지키는 일 ”

- 정명택

내 작품들의 주된 주제는 물질과 공간의 어우러짐이다. 공간에 대한 탐구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서양 건축물이 벽을 쌓아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뚜렷이 구별한다면 한국 고건축에서 공간이 갖는 특색은 기둥을 주축으로 건축물이 형성되고 필요에 따라 문을 개폐할 수 있어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그리 명확히 두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 한국 고건축은 물질(건축)과 비물질(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 고건축의 개방적이고 변화무쌍한 공간의 아름다움은 내 작품에 형태적이나 내용적으로 많은 영감을 준다. 나는 작품을 통해 시각적 아름다움과 실용적 기능을 넘어 물질과 공간의 본질적 관계에 대해 자유로이 탐구하고 사유하고 싶다.

- 정명택 작가노트에서 발췌

JUNG MYUNG TAEK

정명택

정명택 작가는 고정된 가구의 기능, 소재, 장식의 의미나 해석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이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커다란 철판과 등나무를 이용한 벤치를 통해 은폐된 재료의 물질성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서 작가가 해석하는 자연친화적이며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 『Matter & Mass』 展의 전시도록 서문 중,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임미선, 2017

정명택은 생명이 다한 140개의 대청마루 조각을 옮겨와 스톨로 재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덩벙 주초의 모나고 거친 표면 위에 놓일 기둥의 밑동을 상상하면서 '데'와 '뒸'에 이르는 과정을 토크아 불 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의 조형물은 '시간의 자리'를 선명히 읽히게 하는 역사적 경험을 체득하게 한다. 사리(事理)에 눈이 멀어 헤매지 않으면서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자연행위가 바로 정명택이 추구하는 예술의 근본개념이다.

[...] 정명택의 무위(無爲)는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기다리는 은일한 사물의 체계 안에 놓여 있다. 그 체계는 사물의 역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느다란 틈새를 유지하고 있다. 동일성 속에서 점진적인 차이를 포용하는 평등성, 뾰족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완벽한 평형과 대칭에서 비롯되는 차별성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 과거와 현재, 실용과 실제의 구분이 사라진 일체성 미학이 정명택의 예술적 단서이면서 기척의 어느 지점이다. '완성'이라는 미명하에 작가를 위축시키고 관객을 주눅 들게 하는 '신화'를 정명택과 그의 작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은일한 사물의 기척점에서 균무하는 무위 세계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 <정명택, 무위재고 : 은일한 사물의 기척> 展의 전시 서문 중, 공예평론가 육상수, 2021

BIOGRAPHY

정명택 鄭明澤 (Korean, 1971*)

EDUCATION

2015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전공 박사

2007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전공 석사

2001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전공 석사

1998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2010 -현재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생활제품 디자인학과 교수

AWARDS

2019 최우수작가상(개인전 부문)/ (사)한국기초조형학회

2016 학술상/ (사)한국가구학회

2014 최우수작품상/ (사)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선정/ 차세대 디자인리더, 지식경제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A Sense of Serenity/ Museum of Saad Zaghloul, Cairo, Egypt

2018 More than a Utilitarian Objects / 52 갤러리, 대구

2014 정명택 아트퍼니처전/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12 정명택 아트퍼니처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8 정명택 아트퍼니처전/ 가나아트 포럼스페이스, 서울

2006 정명택 아트퍼니처전/ NTID Dyer Arts Center, Rochester NY,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House of Craft / 청주시한국공예관, 청주
2018 Constancy and Change/ 밀라노 트리엔날레디자인뮤지엄, 이탈리아
Design Art Busan/ F1963, 부산
Timelessness 오세열 박가원 정명택 전/ 갤러리 래, 부산
2017 디자인 아트 부산 (F1963)/ BEXCO, 부산
아트 부산/ BEXCO, 부산
2016 SOAF(서울오픈아트페어)/ COEX, 서울
아뜰리에스토리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5 Make Yourself Comfortable at Chatsworth/ Chatsworth House, UK
Art & Design/ 더페이지갤러리, 서울
2014 아트 부산/ BEXCO, 부산
요코하마 국제교류전/ 요코하마 미술대학, 일본
2012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특별초대전/ 청주문화산업단지 일원, 청주
2010 디자인 마이애미 바젤/ 스위스
물질에서 예술로의 전환/ 부산시립미술관
2007 삶의 대한 형식전(초대작가전)/ 제5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SELECTED PUBLIC COLLECTIONS

(주) 대양상선 본사, 서울
(주) 옴니디자인 본사, 서울
그 외, 개인 소장 다수

ARTWORK LIST

NO.	IMAGE	CAPTION
1		<p>Ambiguous Space 2101, 2102, 2103 stainless steel, steel 800 × 740 × 225 mm (each) 2021</p>
2		<p>Arcaded Seat 2101 1820 × 480 × 720 mm (each) stainless steel 2021</p>
3		<p>On the Rock 2101 1080 × 850 × 150 mm natural stone 2021</p>
4		<p>Dumbung-jucho 2102 590 × 570 × 360 mm Bronze, stainless steel, rivet 2021</p>
5		<p>Crack 2101 446 × 446 × 80 mm coloring on poplar 2021</p>
6		<p>Unbounded Weight 1301 408 × 152 × 207 mm Chinese ink on oak 2013</p>
7		<p>Gaze of thorns 450 × 370 × 650 mm Beach, trifoliolate orange tree 2021</p>
8		<p>Maru Hanok floorboard, steel, rubber, screws Various sizes 2021</p>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전시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됩니다.

JUNG MYUNG TAEK

정 명 택

무위재고 無爲再顧 : 은일(隱逸)한 사물의 기척

R reinterpretations of Muwi: Resurgence of Hermitic Objects

EXHIBITION

2021. 08. 20 – 09. 17

CONTACT

02-3447-0049

www.thepage-gallery.com